

서울 목동중학교 국어 교사 주예지

마음속 호수를 헤엄쳐 나아가기 위하여

『호수의 일』
이현 장편소설



책 소개

“이렇게 바위처럼 얼어붙어도 일단 녹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어. 봄을 어쩔 거야? 계절이 그렇게 무섭다니까.”(301면)

호정은 얼어붙은 호수를 안전하다고 느꼈다. 유년 시절의 아픔과 외로움, 마음의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오묘한 감정들. 이것들이 얼어붙은 호수는 말 그대로 정지 상태니까. 나에게 아무런 힘도 가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 호수에 서서히 균열이 생긴다. 견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마음속 틈에 호정은 무척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어린 동생 진주를 보면 유년 시절 겪었던 아픔이 떠오른다. 자신의 혼란을 시춘기 감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부모님에게 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SNS에서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전학생 은기와 만나게 되고 궁금증은 설렘으로 바뀌면서 따스한 기운을 느끼지만, 갑작스레 꼬여 버린 인연은 다시 풀리지 않는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객근의 무리에 의한 폭로와 소문으로 은기가 사라지고, 호정은 은기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방황하게 된다. 친한 만큼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마음에 생채기를 내 버린 친구들이지만, 결국 자신의 손을 잡아 주는 친구들이 고맙고 미안하다. 사라진 은기를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용기 내어 전한다. 그제야 호정은 봄이 오는 일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아빠의 말처럼 계절이 그렇게 무섭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무섭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특히나 성장의 기쁨과 아픔을 느끼는 시작점에 홀로 서 있는 청소년의 마음은 더욱 그렇다. 호정처럼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은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호수의 일』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호정의 마음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려 내어 독자들이 호정의 감정에 몰입하고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한다. 호정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감정선에 의아해하며 반박하기도 한다. 그렇게 호정의 마음속 호수가 녹기 시작하며 조금씩 흐르는 물을 발견하고 책을 덮게 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 호수를 떠올리게 된다. 누군가는 단단히 얼어붙은 호수를 두드려 불 태고, 누군가는 균열이 생긴 호수의 틈에 손가락을 베이기도 할 테고, 누군가는 막 녹기 시작한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껏 헤엄치며 나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자신만의 새로운 호수의 일에 봄의 설렘 또한 가득하기를.



활동의 초점

인물의 마음속 들여다보기

책의 제목인 『호수의 일』은 호정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작가는 책의 처음과 끝에서 마음은 호수와 같다는 비유를 독자에게 친절히 건네준다. 배경이나 사건보다 인물의 내면에 집중하여 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몰입하게 한다.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상처를 꺼내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매개를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고 감정에 이입하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호정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답답하고 복잡한 인물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읽기 중에는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읽고, 읽기 후에는 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상담 기법 중 하나인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편지를 써 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연극으로 장면 재구성하기

인물의 내면에 공감하고 감정 이입을 하면서 주어진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연극 활동을 구성하였다. 장면을 재구성하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처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에서 청소년 독자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대리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학생 개인의 문제가 공개된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자칫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장면을 재구성하는 역할극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직면하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다. 완성도 있는 연극 공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기법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활용하는 교육 연극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공연이라는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재구성할 장면을 설정하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 세심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1	읽기 전 활동	[활동1] 사춘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
		[활동2]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2	읽기 중 활동	[활동1] 인물의 감정선 따라가며 읽기
3		
4		
5	읽기 후 활동	이해 및 적용
6		[활동1] 인물관계도 그리기
		[활동2] 인물의 마음속 들여다보기
		[활동3]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편지 쓰기
7	창의 융합	[활동4] 핵심 키워드로 작품 표현하기
8		[활동5] 연극으로 재구성하기
9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① 활동1 사춘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

읽기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춘기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 활동이다. 책 내용 중 한 구절을 미리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춘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본인이 사춘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 사춘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 어떤지 나눠 보도록 한다.

1. 다음 구절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자.

목에 걸고 있던 헤드폰을 바로 썼다.
 “재 저거 썼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동시에 서로를 봤다. 단지 눈빛을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나는 알았다.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었다. 하여간, 우리 딸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지. 아휴, 무서워. 건드리지 말자.
 사춘기잖아. (16면)

- 어떤 상황인지 추측해 보자.
-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 사춘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 보자.

활동 2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읽기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활동이다. 마음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이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 감정, 기억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음의 공간을 표현할 때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2. '마음'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여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유롭게 그려 보자.

「명사」

「1」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 마음이 좋다.
- 아내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어진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2」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 몸은 멀리 있어 마음으로나마 입학을 축하한다.
-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3」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 안 좋은 일을 마음에 담아 두면 병이 된다.
-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 친구에게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예시)



[이미지 출처]

<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iceberg-illustrated-theme_9899723.htm" >Freepik

●●● 읽기 중 활동

| 2~4차시 |

활동 1 인물의 감정선 따라가며 읽기

책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읽는 활동이다. 인물의 마음속을 차지한 생각과 느낌, 기억을 깊이 있게 읽도록 안내한다. 인물의 감정선이 잘 드러나는 구절을 독서 일지에 메모하며 읽고, 읽기 후 활동 때 메모한 구절이 활용됨을 미리 안내한다.

1. 주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구절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독서 일지>

읽은 날짜	
읽은 부분	
주요 사건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구절	○ ○ ○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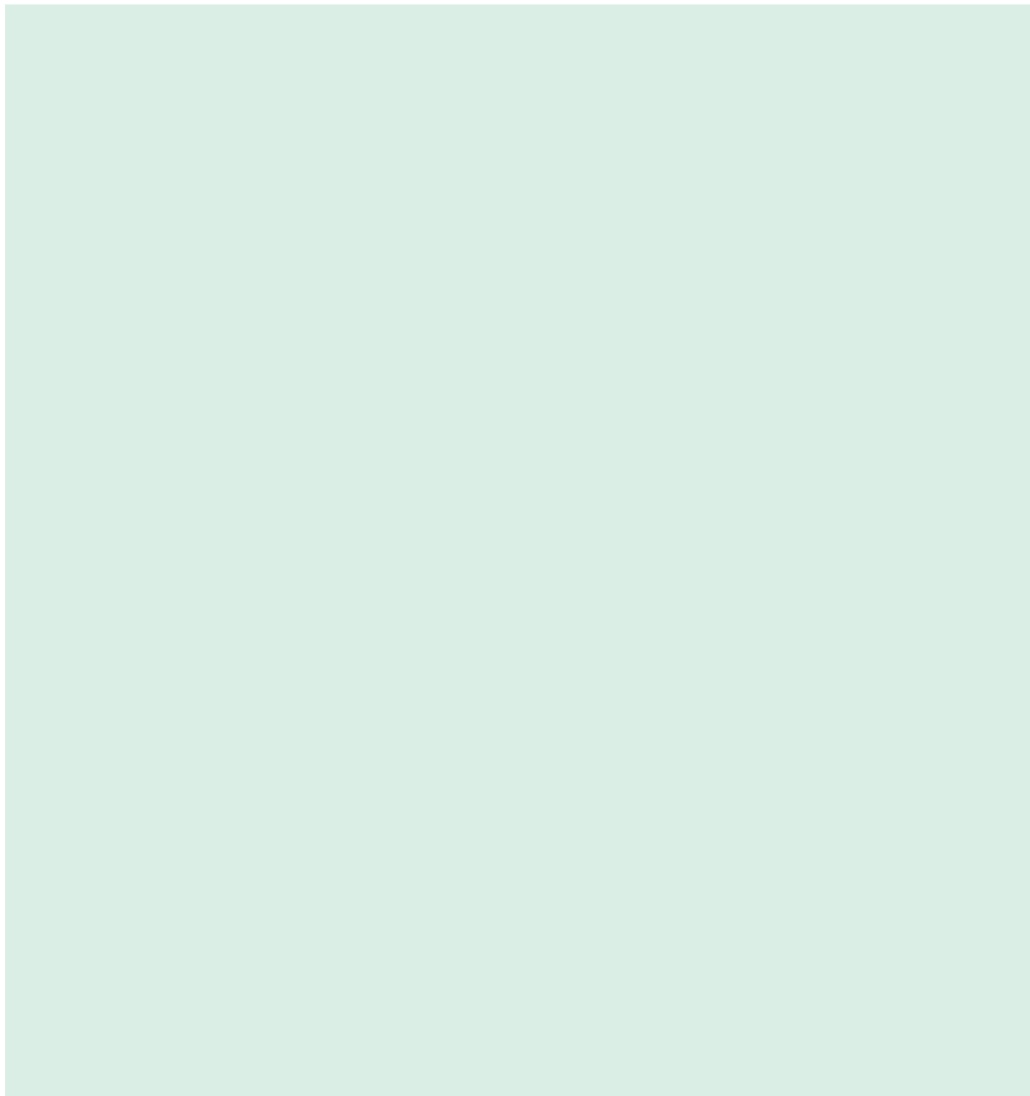
... 읽기 후 활동

| 5차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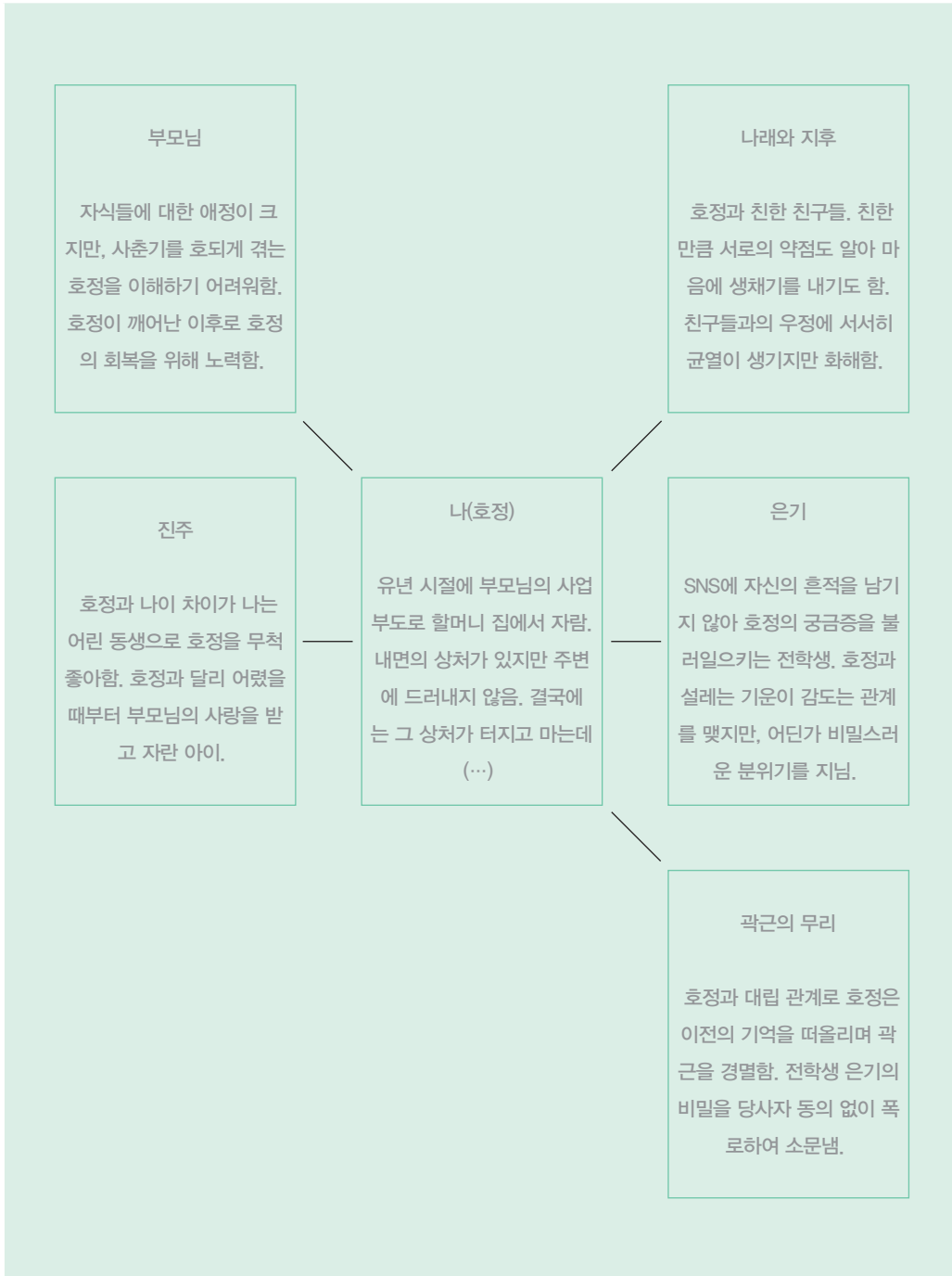
활동 1 인물 관계도 그리기

관계도를 통해 소설 속 등장인물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관계를 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인물의 특징, 성격, 가치관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계도를 그림으로써 주요 사건과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1.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 보고, 인물의 특성을 적어 보자.



(예시)



활동 2 인물의 마음속 들여다보기

작품 속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상담 기법 중 하나인 '빈 의자 기법'을 통해 인물의 마음속 복잡한 심리를 파악하여 작품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빈 의자에 인물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활동을 진행한다. 작품 속 인물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건네 보고, 반대로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답해 봄으로써 인물의 마음에 깊이 있게 감정 이입하고 구체화한다. 인물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읽기 중 활동에서 작성했던 독서 일지를 참고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근거를 찾아 추측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을 하기 전에 학습자들을 활동으로 초대하고 규칙에 대해 약속한다. 의자에 실제로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지만 지원자가 소환한 인물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여 활동에 몰입하도록 한다.

※참고※ 빈 의자 기법

자신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지금-여기에서 다루기 위해 빈 의자를 사용하는 기법.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가 모레노(Moreno)가 창안하고 게슈탈트 이론가 펄스(Perls)가 발전시킨 사이코드라마의 한 기법으로서, 보조 의자 기법으로도 불린다. 이것은 내담자들이 빈 의자를 두고 마치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정한 다음, 의자들이 놓인 곳 사이에서 둘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의 자기와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토의를 하는 듯 연출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빈 의자 기법 [empty chair, 椅子技法]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 인물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작품 속 인물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자.

인물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2) 빈 의자에 작품 속 인물이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보자.

<활동 방법>

- ① 의자 두 개를 마주 보도록 앞에 둔다.
- ② 지원자는 앞에 나와 의자에 앉는다.
- ③ 빈 의자에 앉을 인물을 소환한다.
- ④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궁금했던 점을 질문한다.
- ⑤ 맞은편 의자로 이동해서 앉는다.
- ⑥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질문에 답한다.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본다.)

| 6차시 |

활동 3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편지 쓰기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는 것으로 [활동2]와 연계되는 활동이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정하고 인물의 처지와 감정이 잘 드러나게 쓰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활동2]에서 살펴본 있던 인물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3.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 | | |
|---|---------------------------------------|
| <input type="checkbox"/> 호정이 은기에게 | <input type="checkbox"/> 은기가 호정에게 |
| <input type="checkbox"/> 호정이 부모님에게 |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호정에게 |
| <input type="checkbox"/> 호정이 나래와 지후에게 | <input type="checkbox"/> 나래와 지후가 호정에게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예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 | | |
|---|---------------------------------------|
| <input type="checkbox"/> 호정이 은기에게 | <input type="checkbox"/> 은기가 호정에게 |
| <input type="checkbox"/> 호정이 부모님에게 |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호정에게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정이 나래와 지후에게 | <input type="checkbox"/> 나래와 지후가 호정에게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나래와 지후에게,

얘들아, 안녕.

그때 이후로 오랜만이지? 나는 지금 퇴원한 후에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이야.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나는 예전부터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겠지?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워.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사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미워져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

호정이가.

활동 4 핵심 키워드로 작품 표현하기

앞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 및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교사는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워드 클라우드 타입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결과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4. 작품을 핵심 키워드로 표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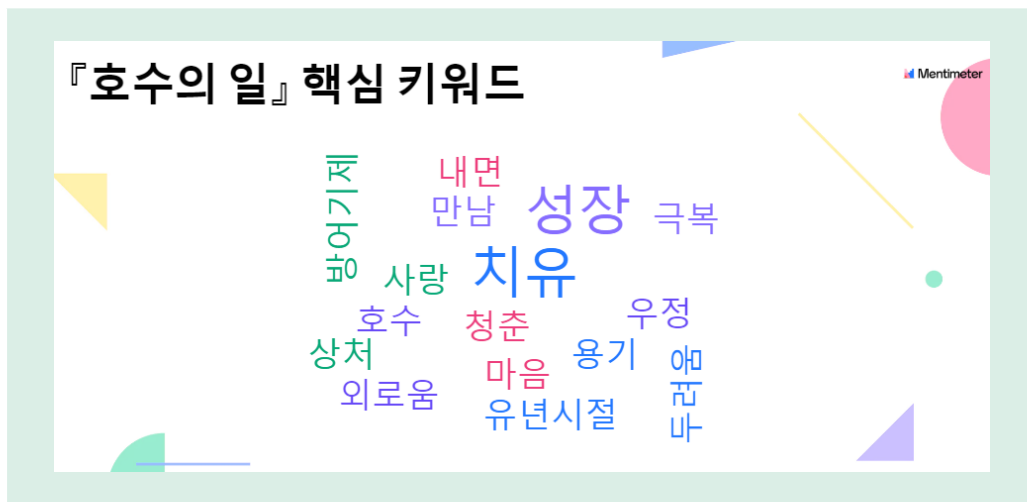
1) 작품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보자.

핵심 키워드	그렇게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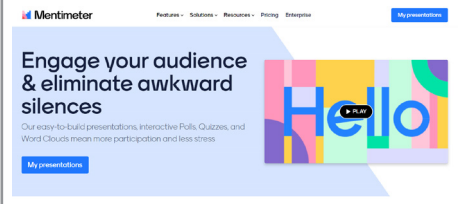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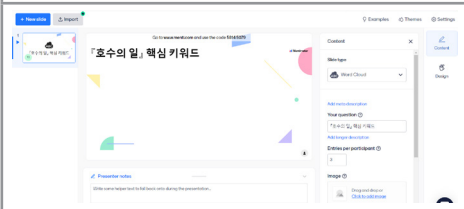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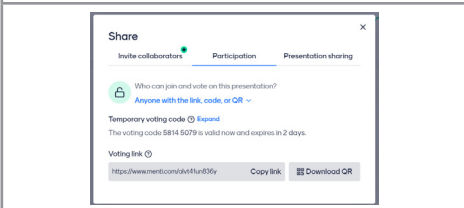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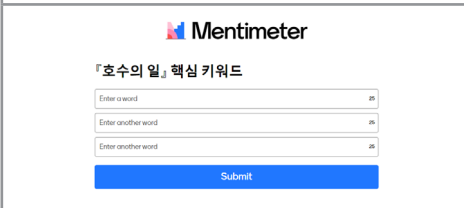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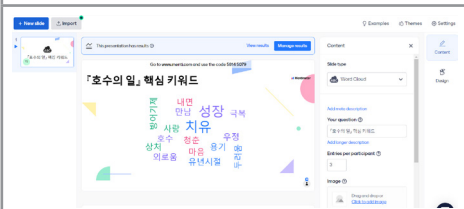
2)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친구들이 적은 핵심 키워드를 확인해 보자.

3)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작품을 통해 내가 배운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예시)



※멘티미터 활용법※

	<p>교사) 멘티미터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하기 https://www.mentimeter.com/</p>
	<p>교사)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워드 클라우드 타입 선택하기</p>
	<p>교사) 학습자에게 공유하기 -응답 링크 혹은 큐알 코드 제시하기</p>
	<p>학습자) 질문에 응답하기 -교사가 공유한 링크에 접속해서 내용 작성하기</p>
	<p>실시간으로 학습자 응답 확인하기</p>

활동 5 연극으로 재구성하기

작품 속에 나왔던 장면을 재구성하거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연극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상상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재구성하되, 연극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도가 무엇인지 구체화한다. 연극 공연 자체가 아니라 연극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둔다. 교사는 장면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주고받는 인물들의 대화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 작품 속에 나왔던 장면을 재구성하거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연극으로 표현해 보자.

- 1) 모듬 구성하기
- 2) 연극으로 재구성할 장면 설정하기

- 3) 스토리보드 구성하기

▶ 창작 의도: _____

7) 연극 관람하기

모듬	제목	인상 깊은 장면 및 대사

8) 소감 나누기